

상담심리전공 대학생의 대인 외상 경험과 상담자로서의 성장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홍예영¹, 장은진^{2*}

¹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겸임조교수, ²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A Qualitative Study on the Interpersonal Trauma Experience in Counseling Psychology Major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Growth Process as Counselors

Ye Young Hong¹, Eun Jin Chang^{2*}

¹Adjunct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²Associate professor, Counseling psychology,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상담심리전공 대학생들의 관계 외상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겪은 외상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상담자로서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외상의 경험과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고 최종 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면대면 면담을 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질적 사례 연구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상 및 이후의 성장 경험은 38개의 의미단위, 15개의 하위범주, 5개의 범주로 범주화 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고통의 시간들', '복잡한 감정을 홀로 감당하는 삶', '이해받고 이해하는 경험', '변화를 향한 시도와 새로운 의미', '상담자로서의 성장에 대한 걱정과 기대'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상을 경험한 상담심리 전공 학생들의 개입 방안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와 교육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상담심리 전공 대학생, 대인 외상, 상담자로서의 성장, 외상 후 성장, 질적 연구

Abstract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experience of interpersonal trauma among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counseling psycholog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trauma they experienced, and analyzed the process of their growth as counselors. To that end, we conducted a survey on interpersonal trauma and post-traumatic growth, and interviewed final six students in a face-to-face interview, and analyzed the collected data using the method of qualitative case study. As a result, the trauma and subsequent growth experience have been categorized into 38 semantic units, 15 subcategories and 5 categories, including 'Times of pain', 'A life of dealing with complex emotions alone', 'An experience of understanding and being understood', 'Attempts to change and new meanings' and 'Worries and expectations of growth as a counselo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providing basic information and educational materials needed for the intervention of students majoring in counseling psychology who have experienced trauma.

Key Words : A university student majoring in counseling psychology, Interpersonal trauma, Growth process as counselors, Post traumatic growth, Qualitative study

*This paper was funded by the Korea Association of Counseling Department in 2018.

*Corresponding Author : Eun Jin Chang (ejchang@kbtus.ac.kr)

Received March 8, 2019

Revised April 26, 2019

Accepted May 20, 2019

Published May 28, 2019

1. 서론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대학 내에서도 상담심리 전공생들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고민하고 있다[1].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상담에서는 상담자 자신이 상담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2]. 상담자 발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 의하면, 상담자 발달요인과 가장 상관관계가 큰 상담자 요인 중 하나는 역전이 활용능력으로 나타났다[3]. 상담자의 역전이는 상담자 자기문제와 연관이 있으며, 자기 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내담자에게 역전이를 일으키고 상담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4]. 따라서 상담자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담전공자들의 특성상 내담자를 도와준다는 역할에 가려져 정작 외상과 같은 자신의 심리적 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5].

그동안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담을 실제로 하고 있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내용 또한 상담자 발달 수준이나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기존의 연구가 이미 훈련된 상담자들 즉, 일선 현장에서 상담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담을 전공하는 학생의 신분을 거쳐야 한다. 특히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대학생에게는 학부 때부터 상담가로서의 수련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자에 관한 연구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3]. 특히 정작 상담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심리적 외상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다루고 극복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외상이란 한 개인의 삶에 닥친 위기 및 사건으로 인해 주관적인 정서적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게 하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스트레스 사건이다[6]. 이러한 외상의 형태를 Allen[7]은 대인관계의 관여 여부에 따라 대인관계 또는 비대인관계 외상으로 구분하였다. 사람과의 관계와 직접 관련된 외상을 대인관계 외상으로 본다. 예를 들어, 주양육자와의 불안정 애착으로 형성된 외상, 가정폭력, 정서적 방임 등과 같은 사건들을 포함한다. 대인관계 외상은 오랜 시간 주어진 환경에서 반복적인 외상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8] 정신과적 도움을 필요로 할 정도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며 만성적인 특성이 있다[7,9]. 특히, 대인관계 외상

을 경험한 사람들이 비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보다 감정 조절의 어려움, 신체화, 불안, 우울, 자아탄력성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10], 부정적 인지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발달 단계에 놓여 있는 아동 및 청소년기에 이러한 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하게 될 경우, 정서, 행동, 사회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2]

어린 시절의 대인관계 외상이 만성화 또는 내면화된 경우, 그 문제 자체로 인하여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보다는 상담에 가져온 문제가 대인관계 외상과 연결된 경우가 많다[13].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대인관계 외상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상황이 많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인의 대인관계 외상 경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사람을 직접 만나야 하는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상담자로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내담자를 만날 경우에는 상담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자의 전문성과 내담자를 위한 윤리를 위해서도 상담을 공부하는 학생들 시기부터 자신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자각과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경험은 필수적이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외상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고, '외상'이란 대인관계에서의 외상 경험임을 말해준다. 외상 경험과 그로 인한 성장 과정의 경험을 알기 위해서는 정서 및 지각의 변화를 심도 있게 탐색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양적 연구 방법을 넘어선 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심리전공 대학생들은 외상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둘째, 외상 후 상담가로서의 성장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셋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외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선정

외상 경험이 있는 학생을 표집하기 위해 대전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사전 신청을 받았다.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한 열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참여자로 적합한지를 알기 위해 생애 중 외상적 사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크리닝을 하였다. 생애 중 외상적 사건 체크리스트는 주혜선, 안현의[14]가 외상 후 위기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외상의 유무와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검증 받은 설문지에 필요한 대인 외상 관련 질문을 추가하여 임상 전문가의 검증을 받았다. 경험한 외상의 유형(전쟁, 강제 수감, 자연 재해, 화재, 교통사고, 건축물 붕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기타 충격적인 사건에 대인 외상, 관계 단절, 자살 포함)에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주요한 타인이 경험한 것을 모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험한 횟수, 외상이 발생했던 당시의 연령, 가장 충격적인 외상 내용의 우선순위를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Tedeschi와 Calhoun[6]이 개발하고, 송승훈 등[15]이 번안 및 타당화한 외상 후 성장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 전체문항은 21개이며, 0~5점으로 구성된 6점 척도이다. 외상 경험 이후 긍정적인 자신의 변화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서 '나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0점, '나는 이러한 변화를 매우 작은 정도 경험했다는' 1점, '나는 변화를 조금 경험하였다'는 2점, '나는 꽤 변화를 경험하였다'는 3점, '나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는 4점, '나는 매우 많이 경험하였다'는 5점으로 점수화하여, 0~105점까지 평정되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을 많이 경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승훈[15]의 PTSD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총점 34.89, 표준편차는 19.47로 나타났다. 송승훈 등[15]은 외상 후 성장 척도를 사용함에 있어 문항 전체의 총점을 가지고 결과를 해석하되, 특히 피검자에게 척도를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할 때 외상 경험의 질과 심각도를 질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고한 연구 참여자일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에게 문항 응답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였다는 주관적 보고를 하였다.

사례 연구에서의 연구 참여자는 가능한 연구자의 연구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연구물에 대해서 논평해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해서 가장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할 필요가 있기에[16] '목적 표집'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스스로 신청한 연구 참여자들 중 목적에 적합하다고 사료된 최종 6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Table 1에 표기하였다.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No.	Gender	Age	Age of Trauma	Type of Traumatic events	Scale Score of Post-traumatic growth	Having counseled someone else
1	female	22	19	violent speech & assault	17	×
2	female	22	16, 21	loss of relationship	57	×
3	female	22	12~17	tortmentee, neglecting	58	○
4	female	21	17	family conflicts	31	×
5	female	22	21	family conflicts	53	×
6	male	26	11~19	unstable attachment	70	○

인터뷰를 실시한 시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은 만 21~26세이며, 모두 대학교 4학년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외상을 경험한지는 최소 17개월에서 최대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고 보고하였다. 외상을 경험한 나이는 일시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 또는 연구 참여자의 언급에 따라 가장 심했던 시기라고 기억하는 나이를 기재하였다. 또한 상담자로서의 성장에 내담자 경험의 영향이 어떠한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았던 경험의 여부를 표시하였다.

2.2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

자료 수집과 분석기간은 2018년 11월~2019년 2월까지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 참여자를 심층 면담하여 수집하였다. 면담은 6명을 모두 개별 면담으로 만나 진행하였으며, 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6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면담 일자와 장소를 정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를 위한 목적과 내용,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 연구 참여 중단에 대한 자발성, 연구 결과에 대해 알 권리, 면담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익명으로의 처리, 면담에 대한 답례품'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연구 설명문의 제3항 '면담 후 과거의 불편한 기억이 떠올라 정서적 어려움이 생길 경우 면담은 중단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5항의 '연구 도중 그만 두고 싶을 경우 언제든지 도중에 의사를 밝혀주시면 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가 면담을 통한 2차적 심

리적 어려움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와의 상의 하에 비밀이 보장되고 편안하게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내의 학생상담센터를 활용하였다.

둘째, 면담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및 면담 녹음에 대한 동의서와 연구 참여에 대한 답례품 확인서를 받았다.

셋째, 면담 질문은 “삶에서 힘들었던 외상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라는 일반적인 질문에서 시작하여, “힘들었던 경험이 삶에 미친 영향과 의미,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한 경험과 그 의미, 외상 및 성장의 과정이 상담자로서 어떤 의미가 될지” 등에 대해 질문하여 외상 경험과 상담자로서의 성장 과정에 대해 탐색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Table 2와 같다.

삶에서 두 번 이상의 외상을 경험하였다고 한 경우에는 더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경험을 위주로 이야기해달라고 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연구 참여자의 선택에 맡겨 면담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면담은 녹음기를 통해 녹취하였으며, 면담은 보통 30분~60분 정도로 진행되었다. 면담 이후 생기는 추가 질문에는 다시 추가 면담을 요청할 것이지만, 연구 참여자의 사정에 의해 e-mail이나 전화 통화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고지하였다.

Table 2.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for In-depth Interviews

<p>What did you experience through traum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l me about the feelings and thoughts you had in that experience. ■ Tell me about the changes caused by traumatic experience. <p>What experience did you experience in overcoming traum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at did you see and find out that you are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or growing? ■ Tell me about the feelings and thoughts you felt in the process. ■ If you have specific countermeasures and efforts, please tell me. <p>What does trauma mean to y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at does trauma mean in your life? ■ What does that experience mean in your growth as a counselor? ■ What kind of person do you think you've seen through that experience?

2.3 자료분석 방법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 사례 연구는 ‘어떻게, 왜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서술에 적절하며,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변화 과정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적합한 방법론이다[16]. 본 연구의 주제가 상담심리 전공 대학생의 대인 외상 경험과 상담자로서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질적 연구 방법 중 사례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또한, 전사 작업, 세그멘팅과 메모 작업, 범주 합산의 과정을 거쳐 사례 연구의 분석절차를 따랐다[17]. 우선, 전사된 자료의 필사본을 전체적으로 읽으며 반복되는 주제들이 있는가를 탐색하여 출단위 분석을 하며, 연구 참여자의 외상 사건 및 경험에 맞춰 그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의미단위를 묶었다. 이후 묶여진 의미단위의 본질이 무엇이며, 참여자의 경험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명명하고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기술된 의미단위에 반복되는 내용이나 서로 연관되는 사건이나 현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경험과 의미를 분류하여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위범주의 동질성에 따라 가장 큰 단위로 범주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2.4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로 박사 학위 논문을 받은 상담심리 전공 박사 1인, 임상심리전공 박사 1인에게 연구 수행 전 과정과 분석 과정에 대한 검토를 받고 피드백을 토대로 분석 결과를 수정하였다. 분석 결과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외상의 경험을 보고한 상담심리 전공의 학부생 2명과 외상의 경험이 있었다고 보고한 타 대학원생 1명에게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본 연구 결과의 수용도, 자신이 경험한 상황에 적용 가능성의 정도’ 등의 내용을 묻고 검토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외상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회상적 면담을 통해 외상 경험에 대한 의미와 상담전공자로서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외상 및 이후의 성장 경험은 38개의 의미단위, 15개의 하위범주, 5개의 범주로 범주화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외상의 경험을 ‘고통의 시간들’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이후 ‘복잡한 감정을 홀로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였다.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이해받고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 ‘변화를 향한 시도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상담자로서의 성장에 대한 걱정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범주 결과를 요약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으며, 의미 단위의 내용에 연구 참여자 번호를 기재하여 어떠한 참여자들로부터 추출한 공통된 내용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Table 3. Categorization Analysis Result

Cate-gories	Subcategories	Semantic units	
Times of pain	Be atrophied in relationship	Bordered by similar people (research participant 1, 5)	
		Difficulty in eye contact (research participant 1, 6)	
	Suffering from negative emotions	Feeling sorry and guilty (research participant 2, 6)	
		Frustration and depression (research participant 3, 4, 5, 6)	
		Feelings of fear and anxiety (research participant 1, 2, 4, 6)	
	A debilitated routine	Symptoms of somatization (research participant 2, 3)	
		Having nightmares and insomnia (research participant 2, 5)	
		Surprised at the slightest noise (research participant 1)	
	A life of dealing with complex emotions alone	Resentment and anger	The injustice of having to go through such a thing (all research participant)
			Feelings of resentment and anger at a family you don't understand (all research participant)
Avoiding and repressing		Trying to forget about something else (research participant 1, 2, 4, 6)	
		Pretend to be okay and live with it (research participant 1, 2, 3, 4, 6)	
		Trying to understand (research participant 3, 4, 5, 6)	
To handle alone		Can't tell anyone (research participant 2, 3, 5, 6)	
		Cry out in the room alone (research participant 4, 5, 6)	
An experience of understanding and being understood	Expressing my heart and gaining support	Telling your roommate a difficult story and getting support (research participant 1, 6)	
		Expressing your feelings to your parents and receiving an apology (research participant 1, 3)	
		Try to express my feelings to my friends (research participant 1, 2, 4, 5, 6)	
	A supportive religion	Go to church and pray (research participant 2, 3, 6)	
		Become aware of gratitude (research participant 2, 3, 6)	

Understanding through major classes	Understanding through counseling	Become understanding of my family (research participant 1, 3, 6)	
		Understanding of my feelings and actions (all research participant)	
Understanding through counseling	Understanding through counseling	Understanding of traumatic events (research participant 1, 2, 5, 6)	
		Apply for consultation with the student counseling center (research participant 3, 4, 6)	
Understanding through counseling	Understanding through counseling	The practice and insights that allow me to introspect through consultation (research participant 3, 6)	
		Realizing that I am being loved (research participant 3, 6)	
Attempts to change and new meanings	Attempt to change	Trying to think positively (research participant 3, 6)	
		Align goals and expectations with reality (research participant 1, 5, 6)	
	Giving new meaning to trauma	The experience that made me stronger (research participant 2, 3, 4, 5, 6)	
		Experience different worlds and different views (research participant 1, 2, 3, 6)	
		An experience that has made me interested in psychology and counseling (research participant 2, 3, 5, 6)	
Preparation as a counselor	Preparation as a counselor	To give a positive identity (research participant 2, 3, 5, 6)	
		Come to think of needing counseling to be a counselor (research participant 2, 4, 5)	
Worries and expectations of growth as a counselor	Disappointment and worry about counseling training	Want to understand more about family (research participant 1, 4, 5)	
		Disappointment over the training process for counselors (research participant 2)	
	Want to be a good counselor	Want to be a good counselor	Worries about my problem (research participant 2, 4, 5)
			Want to be helpful to people who have experienced similar difficulties (research participant 2, 3, 6)
Want to be a good counselor	Want to be a good counselor	Want to tell you how precious you are (research participant 3, 6)	

3.1 고통의 시간들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외상을 경험한 사건과 그 기간은 ‘고통의 시간들’이었다. 하위 범주로는 ‘관계에서 위축됨, 부정적 정서에 시달림, 피폐해진 일상’으로 범주화 되었다. 외상의 경험으로 인해 외상 사건과 관련된 비슷한 사람만 봐도 경계를 하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눈 맞춤도 잘 못 하며, ‘관계에서 위축됨’을 이야기하였다. 관계 상실을 경험

한 연구 참여자는 미안함과 죄책감과 함께 무서움, 두려움 등의 침투적 사고를 보고하였고, 관계 외상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죄절감, 우울감, 불안감 등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에 시달림'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고, 악몽을 꾸기도 하였으며, 잠을 잘 못 이루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며 '피폐해진 일상'을 경험하였다.

3.1.1 관계에서 위축됨

제가 처음 대학 와서는 눈맞춤도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 부담스러워서 막 모자 쓰고 다니고, 고개 쪽 숙이고 다니고, 저는 그때 제 자아상이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연구 참여자 6)

3.1.2 부정적 정서에 시달림

저는 죽는다는 게 무서운 거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깊어지면 심정지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거 같은 느낌도 들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다보면 비극적이거든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계속 드니까 그게 무서워요. (연구 참여자 2)

3.1.3 피폐해진 일상

당시에는 힘들었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신체적인 증상이 많이 나타났던 거 같아요. 새치랑 탈모랑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나 봐요. (연구 참여자 3)

3.2 복잡한 감정을 홀로 감당하는 삶

연구 참여자들은 고통의 시간을 홀로 감당하여야만 했다. '원망과 화, 회피와 억압, 홀로 감당하기'가 하위 범주로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외상의 경험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누군가를 향해 '원망과 화'를 내보기도 하고, 감정을 마주하는 것이 괴로워 '회피와 억압'을 하였다. 자신이 겪은 경험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자신의 힘든 마음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홀로 감당'했다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3.2.1 원망과 화

뒤통이 많은 집이라서 솔직히 언니도 힘든 게 이해는 되지만 저나 동생도 힘든 게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러신 거면 자녀들은 비슷하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언니만 그렇게 약

간 뒤통이 나간 느낌이라 원망이 컸어요. -중략- 너무 힘들니까 언니 얘기만 하면은 너무 감당할 수 없이 짜증이 나고 감정이 올라와서. (연구 참여자 5)

3.2.2 회피와 억압

제가 여기에서 쓰는 게 주로 거의 회피거든요. 그냥 일부러 잘 안 부딪히려려고 하고 회피와 도피가 섞인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제가 부모님에게서만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일종의 방어기제가 된 거예요. -중략- 아, 내가 억압을 되게 많이 받고 자라긴 했구나. (연구 참여자 4)

3.2.3 홀로 감당하기

제가 원래 표현을 잘 안하는 편인데 그거를 더 표현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얘기를 못 해봤어요. -중략- 그래서 혼자 그냥,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다 지나갈 거고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 2)

3.3 이해받고 이해하는 경험

이 범주의 하위 범주로는 '내 마음 표현하고 지지 받음, 힘이 된 종교, 전공 수업을 통한 이해, 상담을 통한 이해'로 4개의 하위 범주가 포함되었다. 외상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힘들음을 표현한 연구 참여자들은 룸메이트, 부모님, 친구들과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지지받음'을 경험하였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는 등의 종교 활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힘이 된 종교'의 도움으로 극복했다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상담을 전공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연구 참여자들은 강의 내용이나 제출된 과제 등의 '전공 수업을 통한 이해'로 가족과 자신,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외상의 경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는 보고가 많았다. 상담 받은 경험이 있는 두 명의 연구 참여자는 학교의 학생상담센터에 직접 상담을 신청했으며 상담을 통해 자신에 대한 통찰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여 '상담을 통한 이해'라 명명하였다.

3.3.1 내 마음 표현하고 지지 받음

엄마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룸메들이랑 같이 사니까 룸메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연구 참여자 1)

3.3.2 힘이 된 종교

내가 힘든 거를 그때는 몰랐다가 20살 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으로 얘기한 대상이 하나님이었던 거죠.

(연구 참여자 3)

3.3.3 전공 수업을 통한 이해

일단 상담사가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부 4년 동안 제일 많이 하는 게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잖아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그게 저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연구 참여자 4)

3.3.4 상담을 통한 이해

일대 전하고 제대하고 나서 상담을 받았었어요. 한 6개월 정도씩. 그때 상담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딱딱 정리해주신 게 있었는데, 제가 방어기제로 부정적 정서를 억압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주지화를 한대요.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연구 참여자 6)

3.4 변화를 향한 시도와 새로운 의미

외상의 경험과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변화를 향한 시도를 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위 범주로는 ‘변화를 시도, 외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를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노력하거나 목표와 기대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 하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외상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외상이란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해 준 경험, 세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보게 해주고, 심리와 상담에 관심을 갖게 하여 진로 선택에도 도움을 준 경험,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을 알게 해 준 경험이라고 의미화 하였다. 이에 이 범주를 ‘외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라고 명명하였다.

3.4.1 변화를 시도

그 이전에는 제가 불편하면 불편해도 얘기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다 해줬지만 지금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하고 거절하고 싶을 때는 거절하려고 하는 게 제일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 1)

3.4.2 외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

무거운 짐인 줄 알았는데 음식같이 맛있는 보상이라고 해야 하나? 뭔가 힘든 일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저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순간이지 않았을까? 외상이라는 게 정말 힘들고 아프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지나가고 나면 더 단단하게 되잖아요. -중략- 그 친구 때문에 심리학과 책을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친구가 상담심리학과를 알려줬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상담 책 같은 거 읽으면서 괜찮겠구나, 그리고 또 저는 모르겠지만 은연중으로 느꼈을 거 같아요. 상담이 필요한 직업이구나 하고, 그래서 상담심리학과에 들어온 걸 후회하지 않아요. (연구 참여자 2)

음.. 아스팔트 위에 새싹 같은 느낌이에요. 아스팔트 위를 뚫고 나온 새싹 같은. 그렇게 솟아오르는. 저는 생각보다 어린 사람이고, 섬세하고, 억압하고 회피하는 사람인데. 극복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고 성장하려는 사람인 거죠. (연구 참여자 6)

3.5 상담자로서 성장에 대한 걱정과 기대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외상으로 인해 상담이나 심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상담심리를 전공한 이후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상담자로서 성장하고 싶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이에 ‘상담자로서 성장에의 걱정과 기대’의 범주라고 명명하였으며, 하위 범주로는 ‘상담자로서의 준비, 상담 수련에 대한 실망과 걱정, 좋은 상담자가 되고 싶음’이 포함된다.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 분석을 통해 자신 및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싶다는 내용을 통해 ‘상담자로서의 준비’라고 명명하였다. 이미 학부생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스스로 신청해서 하고 있는 참여자들도 많았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활동하는 데 한계에 부딪치며 실망을 하고, 상담의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봐 역전이를 걱정하였다. 이를 ‘상담 수련에 대한 실망과 걱정’이라는 하위 범주로 도출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겪은 외상의 경험을 통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내담자로서의 경험을 한 연구 참여자 두 명은 후에 자신에게 상담을 받는 내담자가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경험하게 해주는 상담자가 되고 싶다고 표현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의 상담자로서의 기대가 표현되어 ‘좋은 상담자가 되고 싶음’이라는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다.

3.5.1 상담자로서의 준비

상담을 하면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상담도 경험을 해보고 그러라고 하시는데 상담을 받거나 그

관련 프로그램을 가도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나에게 이게 되게 크구나 하는 걸 여실히 느껴요. 그 분명 상담 현장에 가서 나랑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을 보면 '100% 역전이가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상황에서 감정을 주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있어요. (연구 참여자 5)

3.5.2 상담 수련에 대한 실망과 걱정

사실은 상담을 받으려고 학생상담센터에도 오긴 했었어요 근데 심리검사를 받으면서 상담을 받고 싶은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상담예약을 하면 항상 그 쪽에서 핑크를 낸다던가, 그게 계속 있었어요 -중략- 멘토링을 했었어요 저희를 도와주는 분이 안 계셨었어요 심리학과 대학생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건데, 지도교수님이 있었으면 피드백이라고 해야 하나? 사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저희는 그냥 활동일지를 써서 보고하면 끝 이렇게 되니까. 내가 힘든 거는 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걸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연구 참여자 2)

3.5.3 좋은 상담자가 되고 싶은

트라우마는 내게 메시지이다. 내가 줄 수 있는 메시지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라 할 수 있지요. 공감해줄 수 있는 거죠 -중략- 나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6)

4. 논의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상담 심리전공 대학생이 경험한 외상의 의미와 상담자로서 성장의 과정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경험한 외상 후 성장 과정과 의미의 재구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이론 및 임상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주변 관계에서의 실패와 갈등, 또래집단에서의 소외 등을 가장 많이 외상 사건으로 경험하고 있다[18]. 본 연구 참여자들의 대인 외상 경험 또한 주변 인물과의 갈등을 포함하여 특히 가족 문제 및 갈등에서 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가족에 대한 원망과 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감정을 회피하고 억누르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특성이 두드러졌다. 가족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이상 이들 외상의 경험은 한 개인의 인생에 지속적

이고 빈번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회복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둘째, 외상의 경험이 가족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가족을 포함한 또래 등의 사회적 관계, 전문가의 도움으로 인해 성장하는 것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자기 노출을 선행하였으며, 그러한 경험에 대해 지지를 받고 이를 토대로 이해와 수용의 경험을 하며 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9]. 특히, 집단주의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데에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0].

셋째, 청소년기에 외상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한 경우나 이동기 때부터 가족갈등의 문제가 유지되어 왔던 경우에 외상의 경험이 진로 선택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은 심리적 후유증을 해결하고자 자신이 경험한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심리 및 상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대인외상 경험을 인간적 성장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 [21]와 일치한다.

넷째,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상담심리 전공 수업 및 과제가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가 많았다. 이는 상담을 전공하는 대학생에게 볼 수 있는 독특한 경우로 생각된다. 외상 후 성장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인지적 요인 중 하나인 반추를 중요 요인으로 보았는데[9], 특히 의도적 반추는 외상 사건으로부터 의미나 긍정적인 부분을 찾고자 하는 인지적인 활동이다[22].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강의와 과제를 통해 자신에 대한 통찰 및 성찰 능력을 활용하여 외상의 경험을 수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감적 이해와 심리적 수용은 외상 후 성장에 중요한 과정으로 보고 있지만,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들은 오히려 공감적 이해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연구도 있다[23]. 공감을 해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대인관계 외상경험자들의 공감적 이해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 중 상담 받은 경험이 있는 참여자 두 명은 양적 도구를 통한 외상 후 성장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상담이란 상담자와 내담자가 치료적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정

서 변화를 이루도록 돕는 과정이 이루어지며, 이는 외상 후 성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기대된다[9].

다섯째,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외상의 경험과 극복은 상담자로서의 성장에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있어 외상의 경험은 자신에 대해서 재고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다. 외상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적이고 목적을 가진 반추를 하는데[24], 이 과정은 자신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재정립하도록 도와준다. 나아가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내담자를 잘 공감해주는 상담자가 되고 싶으며, 자신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담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언급하였다. 사람들은 가능한 자기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2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긍정적인 정체성 재정립과 좋은 상담자로서의 기대는 의미가 있다.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외상 경험을 다루는 것은 앞으로 이들이 내담자를 만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기에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수자는 전공 과정에 자신에 대한 성찰과 통찰을 할 수 있는 수업 및 과제를 개발하여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심리 전공 대학생은 외상의 경험을 자신의 진로와 연결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진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후 진로에 대해서는 자신이 누군가를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서 기능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기대가 큰 것에 비해 상담사로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과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도 있었다. 따라서 학부 때부터 상담 관련 활동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관련 대학원 진학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졸업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원생 및 현장에 있는 상담사들과의 멘토링 사업을 진행한다면 상담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외상을 경험한 상담심리 전공 대학생들은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욕구 및 요구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담을 두 번이나 신청했지만 상담자 또는 상담 센터의 사정에 의해 받지 못하였다고 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상담에 대한 욕구는 있었으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좌절의 경험을 한 것이다. 따라서 상담심리 전공생들이라면, 졸업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내담자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이를

전공 과정상의 커리큘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외상의 경험을 누군가에게 털어 놓는 자기 노출은 성장에 있어 필요한 요인으로 제기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을 전공하는 동기들에게 자신의 외상 경험을 털어 놓음으로써 이해받고 지지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상담전공생들 간의 지지 자원들이 외상 후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담심리 전공생들의 집단 스터디 및 동아리 등의 활동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부 전공생들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꾸준히 지도 및 피드백해 줄 대학원생 및 전문가와의 연계, 교수자의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내용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의 연구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담심리사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는 상담사로서의 첫 발은 학부생부터임을 확인하고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외상의 경험이 상담 및 심리를 진로로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부에서의 많은 경험들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질적 연구를 통해 심도 있게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부에서의 경험이 앞으로 상담사로서의 기반을 다지는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외상을 경험한 상담심리 전공 학생들의 개입 방안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이 주로 대인 외상을 경험했기에 비대인관계 외상 경험 및 성장 과정은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비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한 상담심리 전공 대학생은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한 학교의 상담심리 전공 대학생 6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로 표본에 제한이 있었기에 과정에 대한 일반화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 상담심리전공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활발한 개입과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C. W. Hwang., J. A. Park., S. K. Y & J. Y. Kamg. (2012). A Qualitative Study on Graduate Students' Experiences in Counseling Psychology Program in Korea.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3), 1359-1382.

- [2] B. L. Duncan & R. J. Reese. (2016). Using PCOMS technology to improve outcomes and accelerate counselor development. *Using Technology to Enhance Clinical Supervision*, 135.
- [3] M. J. Cheong & H. I. Jo. (2016). The Research Trend and Correlation Meta Analysis on the Counselor Development and Related Facto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7(6), 141-164.
- [4] E. J. Lee & M. H. Lee. (2015).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novice counselors' self problem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6(3), 1-24
- [5] B. W. Kim. (2001). A Study on Career and Occupational Development of the Counseling Majo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2), 263-278.
- [6] R. G. Tedeschi & L. G. Calhoun.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 [7] J. G. Allen. (2008).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American Psychiatric Pub.
- [8] J. G. Allen. (2013). *Mentalizing in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attachment trauma*. Karnac Books.
- [9] Y. J. Seo & Y. K. Kim.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Trauma and Post-Traumatic Growth :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ization and Emotion-based Coping.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0(3), 775-798.
- [10] J. I. Jang. (2010). *Traumatized Self-System in Adults Repetitively Exposed to interpersonal Trauma*.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1] J. E. Park & N. W. Chung. (2016). The Moderating Effect of Forg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Negative Cognitions and Posttraumatic Growth.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7(2), 167-185.
- [12] M. O. D. Wright, E. Crawford & D. Del Castillo. (2009).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later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maladaptive schemas. *Child abuse & neglect*, 33(1), 59-68.
- [13] Y. J. Seo & Y. K. Kim.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Trauma and Post-Traumatic Growth: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ization and Emotion-based Coping.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0(3), 775-798.
- [14] H. S. Joo & H. N. Ahn. (200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osttrauma Risk Checklist.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7(1), 235-257.
- [15] S. H. Song, H. S. Lee, J. H. Park & K. H. Kim. (2009).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1), 193-214.
- [16] R. K. Yin. (1994). *Case Study Research. Thousands Oaks, Cal.*: Sage Publications.
- [17] R. E. Stak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Sage.
- [18] Y. S. Seo, H. J. Cho, H. Y. An & J. S. Lee. (2012). Traumatic Events Experienced by South Koreans: Types and Prevalenc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4(3), 671-701.
- [19] C. L. Park, L. H. Cohen & R. L. Murch. (1996).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tress-related growth. *Journal of Personality*, 64(1), 71-105.
- [20] Y. A. Kim & Y. K. Choi. (2017). A Qualitative Study for the Process of Posttraumatic Growth: A Comparison of trauma survivors' and therapists' perspectiv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2(1), 199-228.
- [21] E. A. Park.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Optimism and Quality of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7(1), 263-288.
- [22] H. S. Kwon. (2018).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the narrative for Post-Traumatic Growth. *Journal of Brain Education* 22, 31-48.
- [23] J. R. Jeong. (2018). The Effect of the Interpersonal Trauma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Acceptance on Empathic Understanding Ability.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10(2), 69-84.
- [24] K. N. Triplett, R. G. Tedeschi, A. Cann, L. G. Calhoun & C. L. Reeve. (2012). Posttraumatic growth, meaning in life, and life satisfaction in response to trauma.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4(4), 400.
- [25] K. C. McLean, M. Pasupathi & J. L. Pals. (2007). Selves creating stories creating selves: A process model of self-develop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1(3), 262-278.

홍 예 영 (Ye Young Hong)

[정회원]



- 2006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석사)
- 2017년 8월 :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심리학과(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겸임조교수

- 관심분야 : 청소년, 심리상담, 질적 연구
- E-Mail : lucyjeje@naver.com

장 은 진 (Eun Jin Chang)

[정회원]



- 199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문학사)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문학석사)
- 200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문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임상심리, 학교심리, 발달심리
- E-Mail : ejchang@kbtus.ac.kr